

## Latin American Culture

### 문화예술

## 뉴욕에서 피어난 라틴아메리카의 영혼, 살사

김혜진

1973년 8월 24일 저녁. 뉴욕이 한껏 달아올랐다. 4만 5천명의 사람들이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을 꽉 채운 것이다. 당대 최고 인기를 누리던 살사 밴드 ‘파니아 올 스타즈’의 살사 콘서트가 있는 날이었다. 흥분한 사람들이 심지어 무대 위로 올라 공연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이 날의 성공적인 콘서트는 미국인의 머릿속에 살사를 아로새기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이주민 세대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알림과 동시에 미국을 넘어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이주민 세대의 새로운 정체성 아이콘으로 살사가 인지되는 순간이었다.

살사는 다양한 음악적 재료로 만든 새로운 양념 같은 음악이다. 살사에는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맘보, 아프로라틴 재즈,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음악과 춤의 영향, 저 멀리 아프리카의 리듬을 연주하는 클라베(clave), 현대화된 사운드를 만들어준 트롬본과 브라스 세션,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가수(sonero), 1960년대를 거쳐 미국에서 유행한 로큰롤과 펑크 음악까지 들어있다. 이처럼 다양한 음악적 요소의 혼합체인 살사의 기원은 16세기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노예무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1. 영혼의 자유를 노래하다



1973년 8월 24일 '파니아 올 스타즈'의 공연

(출처: <https://alberttorresontheroad.wordpress.com/2012/08/25/fania-changed-my-life>)

아프리카에 평원에 퍼지는 북 소리. 노예선에 묶인 아프리카인의 심장 속에는 그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서아프리카, 특히 콩고를 위주로 아프리카의 리듬이 카리브 해 국가, 쿠바까지 노예선을 타고 왔다. 쿠바에 도착해서야 땅을 밟은 이들의 신체는 사슬에 묶이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 영혼은 고동치는 심장에 울리는 북소리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 리듬이 쿠바 전통 음악과 춤 단손(danzón)을 만났다. 룬바의 형태로 상륙한 아프리카 리듬과 3/4박자의 느린 쿠바의 손(son)이 만나 쿠바만의 형식으로 재해석된 아프리카계 쿠바 리듬(Afro-Cuban rhythm)이 시작된다.

1922년 쿠바는 새로운 손님을 맞는다. 미국이었다. 미국에서 1920년 금주법이 시행되자 술과 유흥을 즐길 낙원이 필요했던 미국인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쿠바는 갈증을 해결할 입맛에 딱 맞는 곳이었다. 쿠바에서는 이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여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공연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1930~40년대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는 고급 카바레와 클럽이 번창했다. 쿠바를 찾는 미국인은 대부분 부유층이었고,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색적인 리듬, 아프리카계 쿠바 음악을 접했다. 이 이국적인 음악을 미국에서도 듣고자 원한 사람들은 고급문화로 소개했고, 이로써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미국으로 건너간 아프리카계 쿠바 음악은

미국의 자본주의 물결을 타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미국의 중심도시 뉴욕에는 음악가와 연주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쿠바인이 늘어났다. 이민 1세대가 된 이들은 아일랜드계 이주민과 뒤섞여 살았고, 이로써 아일랜드계 리듬도 아프리카계 쿠바 음악은 껴안았다. 뉴욕에서 아프리카계 쿠바 음악은 재즈와 뒤엉켜 발전하는데, 라틴 재즈의 피아노 선율은 아프리카계 쿠바 음악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특히 아프리카계 카리브 해 리듬을 주도하는 악기인 클라베가 만드는 엷박은 리듬 악기인 피아노의 악보에서 강한 당김음이 되었다.

## 2. 맘보

1950년대는 미국은 그야말로 맘보의 시대였다. 미국 전역에 열풍을 일으킨 맘보는 룸바의 형식에 재즈의 요소가 가미된 빠르게 연주되는 기악 곡으로 살사의 모태이다. 지금의 맘보와 살사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만큼 맘보는 광범위한 라틴음악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살사는 맘보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체로 맘보이기도 하다. ‘맘보’라는 말은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을 부르는 소리였다(‘신이여, 나를 봐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줘요!’). 리드 싱어가 ‘맘보!’라고 외치면 코러스는 멈춘다. 그때부터 한 악기의 독주이자 즉흥적인 연주가 시작된다. 현대에 맘보와 살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연주자가 연주 중간에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하는 특징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맘보는 그 단어 자체로 이 음악 속에 아프리카적 특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맘보는 뉴욕에서 활동하던 쿠바 작곡가 겸 연주자 오레스테스 로페스(Orestes López)가 새로운 스타일의 단손 음악에 ‘맘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로써 아프리카 리듬을 재해석한 쿠바 음악을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맘보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발전한다. 하나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맘보 킹’ 페레스 프라도(Pérez Prado)의 맘보와 뉴욕에서 라틴 재즈로 발전한 맘보이다.

멕시코 출신 페레스 프라도와 그 밴드는 쿠바 본토의 음색과 토속적

느낌을 강조했다. 흔히 알려진 맘보는 페레스 프라도의 맘보이다. 강렬한 에너지와 큰 소리, 신나고 빠른 음악이다. 무엇보다 페레스 프라도의 음악에는 의성어와 외침이 많아서 번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쉽게 수용했다. 페레스 프라도는 복장에서 토속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날다람쥐처럼 옷의 겨드랑이 부분에 거대한 주름이 있는 옷이라든가 화려한 색깔의 옷을 강조했다. 아무튼 페레스 프라도의



페레스 프라도 앨범 재킷  
(출처: <https://www.amazon.com>)

음악을 지금의 살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맘보라고 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 중 많은 부분이 살사와는 다른데, 이것은 페레스 프라도의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등 중미와 헐리웃에서 영화까지 진출하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한 ‘맘보 킹’은 라틴 음악과 리듬을 전파하고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은 라틴 리듬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었고, 이 라틴 리듬의 인기가 자연스럽게 살사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한편 재즈의 도시 뉴욕에서는 또 다른 맘보 킹이 나타났다. 연주자 마치토(Machito), 티토 푸엔테(Tito Puente), 티토 로드리게스(Tito Rodríguez)는 본격적인 살사의 모태가 되는 살사의 기본 리듬을 구축했다. 이 세 사람은 대체로 북을 다루는 연주자들이었고, 이들의 손에 의해 현란하고 빠른 연주의 맘보, 라틴 재즈가 꽃피기 시작한다. 아주 빠른 살사 음악으로 여겨지는 이 맘보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며 빠른 스텝을 밟는 맘보 춤이 시작된다.

### 3. 이민 2세대의 새로운 정체성

1960년대 중반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맘보 열풍이 가시면서 맘보의 빅밴드 오케스트라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하기 위해 뉴욕으로 온 카리브 해 출신의 이민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뉴욕 외곽

의 아일랜드 이민자들 속에서 그들은 유일한 유색인종이었고, 실업과 가난 등 험난한 사회적 분위기의 화살을 받는 대상이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 2세대는 이런 분위기 속에 기존 전통적인 라틴의 것에 반항심을 가졌다. 그들은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토속적 분위기를 자아내던 맘보와 킬리풀하고 토속적인 복장 그리고 전통 라틴 리듬에 싫증을 냈다. 자신들을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사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대, 뉴요리칸(Nuyorican)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들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길 원했다. 음악에서 시작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추구는 더 현대적이고 새로운 소리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런 뉴요리칸에게 전통 라틴 밴드에 새로운 악기 트롬본을 추가한 에디 팔미에리(Eddie Palmieri) 라틴 재즈 밴드는 이후 나아갈 새로운 현대적 라틴 음악의 방향을 제시했다.

뉴요리칸은 현대적으로 변한 라틴 리듬에 열광했고, 이것은 뉴요리칸을 정의하는 시작점이 된다. 이 새로운 음악은 춤을 추기에 너무 빨랐던 간단한 스텝 이외에 본격적인 춤을 추는 것이 힘들었던 맘보에 비해 여전히 빠르지만 그래도 춤추기 알맞은 리듬이 되면서 춤과 음악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리듬이 특징인 이 새로운 음악적 폭풍에 뉴요리칸은 최면처럼 빠져들었다. 이들은 언론에서 흑인인권운동을 보고 인종적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과정을 목격했고, 이러한 편견을 극복해내려는 용기와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겼으며, 음악과 춤으로 만들어진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강한 자부심을 가졌다. 이들의 음악이 거센 인기를 끌면서 흑인 거주구역인 웨스트 할렘의 클럽에서도 이 새로운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높은 톤으로 노래하는 흑인 가창법이 라틴 음악에 스며들었고, 여기에 1960년대 중반 미국을 강타한 록큰롤까지 가세했다. 또 리듬앤블루스, 펑크, 재즈에 클래식의 영향까지 받아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자 라틴 리듬의 기본이 되는 부갈루(boogaloo)가 탄생했다.

살사의 한 장르로 인식되는 부갈루는 이전의 빠른 템포 음악과 달리 완전히 춤추기 좋은 음악이 되었다. 박수 소리를 음악에 넣으며 흥분을 고조시키는 부갈루는 미국에서 아주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음악과 춤으로

인종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부갈루에 다시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쿠바인의 빅 밴드였다. 이 밴드는 부갈루를 흡수해 또 다시 새로운 뉘앙스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아프리카계 쿠바인의 기본 리듬을 연주하는 클라베가 가세함으로써 드디어 완전한 살사 음악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부갈루가 미국 전역에서 대히트를 치고 뉴요리칸의 거주지인 스페니쉬 할렘, 엘 바리오 안에서 음악과 춤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라틴 음악의 방향이 모색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레코드 회사 파니아(Fania)는 당시 인기를 끌던 살사 연주자와 가수를 영입하여 ‘파니아 올 스타즈’라는 밴드를 만들고 그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이민 2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파니아 올 스타즈 대부분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었고, 이들이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춤인 봄바(Bomba)와 음악 플레나(Plena)의 스텝과 리듬을 살사에 가미하면서 아프리카계 쿠바인 기반의 살사에 푸에르토리코의 영향이 가미되었다. 이로써 쿠바와 푸에르토리코가 서로 자신이 살사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티토 로드리게스, 마치토, 티토 푸엔테  
(출처: <http://salsainrussian.ru>)

#### 4. 춤, 살사

단순히 박자에 맞춰 거리에서 추는 춤이던 살사가 본격적으로 클럽 안으로 들어와 정형화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댄서, 에디 토레스(Eddie Torres) 덕분이다. 맘보부터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 Dancing on the “One” (and the “Five”)

| Beat:             | 1                                                                                 | 2                                                                                 | 3                                                                                 | 4     | 5                                                                                 | 6                                                                                  | 7                                                                                   | 8     |
|-------------------|-----------------------------------------------------------------------------------|-----------------------------------------------------------------------------------|-----------------------------------------------------------------------------------|-------|-----------------------------------------------------------------------------------|------------------------------------------------------------------------------------|-------------------------------------------------------------------------------------|-------|
| Starting Position |  |  |  | Pause |  |  |  | Pause |
|                   |  |  |  |       |  |  |  |       |
|                   |                                                                                   | Right foot steps in place                                                         |                                                                                   |       |                                                                                   | Left foot steps in place                                                           |                                                                                     |       |

온원 (출처: <http://www.salsafreak.com/steps.htm>)

른발이 첫 박자에 움직이는 발이다. 또 남자의 스텝을 기본으로 한다. 첫 스텝에 남자가 왼발로 뒷걸음의 스텝을 밟고, 여자는 오른발로 걸어 나아가듯 앞으로 스텝을 밟는다. 박자에 딱 떨어지고 동작이 깔끔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힘 있고 박력 있는 움직임이 잘 어울린다. 대개 정박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쉽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부분에 살사 클럽이나 미국의 기타 지역에서 만나는 일반 사람들은 대개 온원을 춘다. 특히 50년대에 엄청난 맘보의 열기 뜨거웠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열풍이 온원 살사로 이어졌다.

온원과 온투는 스텝이 시작하는 박자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손을 잡는 방식도 다르다. 온원은 남자의 손이 위, 여자의 손이 아래에 있다. 온투 스타일은 첫 번째 박자에서 춤추는 두 명의 사람을 밖에서 바라볼 때 커다란 움직임이 없는 듯이 보인다. 거의 제자리 스텝을 밟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박자에 여자가 오른발과 남자의 왼발이 제자리 스텝을 밟는다. 두 번째 스텝에서 여자의 왼발이 앞으로, 남자의 오른발이 뒤로 간다. 여자의 스텝이 우선시된다. 첫 박자에 걸음이 나가지 않고 두 번째 박자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살사의 두 번째 강세의 리듬에 맞춰 춤이 시작하듯이 보인다. 첫박자의 느낌이 생기며 강한 힘이 대놓고 뻗는 듯한 느낌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온원이 단순 간결함과 힘이 강조된다면, 온투는 첫박의 느낌과 당김음



에디 토레스와 맘보 킹 오케스트라 (출처: www.youtube.com)

에서 생겨나는 탄력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강조된다. 온원과 온투를 나눌 수 있는 음악의 기준은 없다. 어떤 곡의 음악이든 대부분 온원과 온투를 모두 출 수 있다. 하지만 온투가 강한 엇박자의 느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간결함이 강조된 팝 살사의 같은 경우 간혹 온투를 추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온투 살사를 추기에 더 적당한 곡은 두 번째 박자를 강조한 리듬을 이끄는 악기인 콩가 소리가 메인이 되는 음악이다. 뉴욕은 온투 스타일이 유행이다. 온투는 뉴욕 스타일 살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 세계 전문 살사 댄서도 대세인 뉴욕의 유행 스타일을 따라 온원 댄서에서 시작해 온투 댄서로 전향하는 추세이다. 이미 많은 세계 온원 챔피언들이 온투 댄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살사의 본고장답게 뉴욕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살사 춤이 추구되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자에 밖으로의 첫 스텝을 밟는 온쓰리(on 3)와 온포(on 4)도 없는 것이 아니다.

뉴욕 스타일의 춤을 창시한 ‘살사 춤의 아버지’ 에디 토레스는 1950년 생으로 현재 60대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뉴욕의 쟁쟁한 젊은 여자 스타 댄서들과 끊임없는 워크샵을 하며 정정함을 과시하고 있다. 특유의 풋워크를 강조한다. 수많은 유명 댄서를 제자로 두고 있고, 그가 추는 살사는 정통 맘보로 인식된다. 지금도 워크샵에서는 수많은 제자가 함께 참

여해 어떤 수준의 사람이 참여해도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의 아들 에디 토레스 주니어(Eddie Torres Jr.) 또한 현역 댄서로 아버지보다 현란한 풋워크를 보이며 활동하고 있다.

## 5. 뉴욕 살사 클럽과 전문 공연 팀

뉴욕에는 일주일 중 어느 때고 살사를 출 수 있는 크고 작은 클럽이 많다. 일반 레스토랑에서 요일을 정해 살사를 추는 모임이 있기도 하고, 재즈 클럽에서 살사를 연주하기도 한다. 뉴욕의 살사 클럽은 한국처럼 거대한 에어컨이 없다. 더워도 더운 대로, 땀에 젖은 셔츠를 몇 개씩 갈아입으며 춤을 춘다. 그래도 최근 뉴욕의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의 살사 클럽도 렌트 비용이 상승해 입장료가 오르고 있다.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많은 전문 살사 팀이 있고 2016년 기준으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팀은 D'Cor, Zafire, Yamulee, Balmir, Huracán, Piel Canela, Carribean Soul, Frankie Martinez, Franklin Diaz 등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온원 살사를 춘다. 뉴욕의 대세는 온투 살사라고 하지만, ‘춤 잘 추는 사람은 무조건 온투를 춘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고정관념이다. 뉴욕은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다양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댄서가 많다. 맘보 스타일, 혹은 고전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해석으로 등장하는 댄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클럽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살사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살사를 즐길 수도 있다. 전문 공연 팀도 각자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살사의 특징 때문에 패턴, 아크로바틱, 무브먼트, 아이솔레이션, 풋워크, 클래식한 맘보 스타일 까지 팀마다 가지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연마다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

---

김혜진 — 라틴아메리카 춤과 음악의 프리랜서